내달 도시가스 요금 평균 10% 내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81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원유철)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금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됐다"며 "새누리당은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서민부담 최소화의 원칙하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인하분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 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당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조율을 이뤄어 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illegible]

권영세(왼쪽) 전 주중대사와 이완구 총리후보자

물 건너간 인적쇄신?

야 "이완구 인준 강행하면 극도의 여야경색"
권영세 비서실장설 에 정쟁 도화선 우려 증폭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설의 주인공인 권영세 전 주중대사. 여야를 불문하고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한 카드지만 '쇄신'이 아닌 '정쟁'의 화근이 될 전망이다.

15일 연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이유는 출처가 수상해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자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추가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인준을 자신하며 표결에 당당히 나설 것을 새정치연합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준 이후가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인준 표결을 강행한다면 오랜 기간 극도의 여야 경색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처리되는 대로 정의되는 비서실장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비서실장은 내각 총리보다 쇄신의 베이비라는 평가지만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권 전 대사는 야당으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 몸통으로 지목당한 상태다. 권 전 대사가 인사 발표도 나기 전 단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토의 대상이 된 까닭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권 전 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 막힌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여야 간 '잠복한 폭탄'이 되고 있다. 권 전 대사가 비서실장에 취임할 경우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정윤아기자 ynona1@metroseoul.co.kr

안중근 사형선고일 동영상 지난 14일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을 맞아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안중근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공개했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해 10월 안중근의사 의거일에 맞춰 제작한 영어와 한국어 동영상을 재편집해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경덕 교수 제공

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상 추진

새정치, 의료·교육비 15%→20%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필요하다면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의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이한구 '총선 불출마' 선언에 새누리 술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의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고군분투 중인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공을 들이는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바로 이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대구 수성갑이기 때문이다. 15일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더욱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갑에서 이 의원과 맞붙어 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이 의원이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 만큼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은 석패한 셈이다. 야 사실상으로도 김 전 의원의 대구 입성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주변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수도권 3선 의원(경기 군포)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야당 후보 역대 최다인 40.3%의 득표로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다수 의원들의 간청에도 "무엇보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저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천하고 싶다"며 고사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들은 바 있다.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중 하나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내년 총선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호남이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 대구에서도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 대구에서 8석을 석권한 지 2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깃발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계 야당으로는 중선거구제였던 1985년 총선에서 유성환(대구 서구·중구), 신도환(수성구·남구) 신한민주당의 원이 선출된 이후 31년 만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김 전 의원에게 '기회'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당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윤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만만찮은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대구 사정에 밝은 한 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안해 오히려 김 전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청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뿌리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야당 의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지역 정서가 막판 돌풍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있다. /정윤아기자

"이완구,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위증"

진성준 의원 "구매자금 5억 부족분 처남댁에 빌렸다는 해명 증명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팰리스 구매자금의 출처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맞물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자유민주연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차떼기' 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3년 1월 타워팰리스 구입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됐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말 이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 전 살 집이 필요해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임대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전세 5억원짜리 계약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타워팰리스를 샀다. 전세금만큼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를 살 때 5억원이 부족하므로 제 처남댁에게 5억원을 빌렸다"며 "2004년도에 일단 2억원을 변제했고 2005년도에 (남은) 3억원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환시기와 금융거래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은 기억이 납니다"며 "(쟁점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년 10월 이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2012년 10월 한나라당 입당 의원 중 한 명인 윤유철 의원은 1억 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8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것이며 이 시점이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다.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그 사건은 1심·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2심에서 "피고가 불법자금인지 알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평양 상공을 비행 중인 김정은 전용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용기를 타고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가까운 현지지도까지 전용기를 이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 '중심부'라고 불리는 중구역에 조성 중인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건설된 대동강 호안도로를 축으로 최고 수준의 주택과 서비스 시설을 모은 주택 단지다. /연합뉴스

"미제에 불바다"… 북핵위협 현주소는?

美 전문가 "450~750kg짜리 핵탄두 보유"

병단은 공산권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90년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했다.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공산권의 몰락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돈이 덜 드는 핵무기에 더욱 매달리게 됐다. 재래식 군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론since '핵-경제 병진정책'의 배경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6자회담의 틀에 묶어 두려 했지만 지난 20여년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작심하고 핵무장에 나서는 국가는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저지 방법이 없다는 경험칙의 재확인이다. 15일 현재 핵에 문제의 초점은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여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 실세의 입을 빌려 미국을 향해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들씌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은 한·미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이 연말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언어상의 위협을 넘어 실체를 갖게 됐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던 한·미가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도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핵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란 등과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에 협력해 온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의 전문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실험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실린 '북핵 소형화 다는생'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핵탄두가 발사충격·진동·온도변화를 견뎌야 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운반체가 진입을 견뎌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루이스 소장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돼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사관생도 흡연 허용 ·해·공군 결사반대 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이 지금 조종사의 흡연은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뒤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자며 봉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 근신(16주), 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yoona@

연쇄 테러 '코펜하겐 핏빛 주말'

도심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 발생

발렌타인 데이를 겸한 덴마크 주말은 초콜릿 대신 비명 소리로 가득 찼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것이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습격과 IS의 인질 살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터라 수많은 시민들은 황금같은 휴일을 공포 속에 보내야 했다.

14일과 15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시내에서 세 차례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최소 5명 이상이 다쳤다. 각 총격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각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캐리커처한 만평가 참석 행사와 유대교 회당 인근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종교 문제가 얽힌 이슬람 극단세력의 테러 가능성이 거론됐다.

첫번째 총격은 14일 오후 4시 코펜하겐 시내 주택가 안에 있는 '크루트퇸덴' 문화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센터 내 카페에서는 '예술, 신성모독,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용의자는 센터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향해 수십 차례 자동소총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40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경찰 3명이 크게 다쳤다.

용의자의 표적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웨덴 출신 예술가 라르스 빌크스(69)는 무사했다. 이날 주요 연사로서 행사에 참석한 빌크스는 2007년 무함마드의 머리를 개의 몸에 붙인 스케치 그림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을 사며 숱한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덴마크 수사 당국은 "25~30세 가량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추적 중이다. 이 인물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샤를리 에브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와 함께 타인의 신앙을 모독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덴마크 도심 총격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첫 사건 발생 각각 약 10시간과 12시간 이후 두번째와 세번째 총격이 터진 것이다. 두번째 총격은 코펜하겐 시내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세번째 총격은 기차역 주변에서 발생했다. 기차역 총격 사건의 경우 한 남성이 순찰을 돌던 경찰을 향해 총을 쏘자 이에 경찰이 총으로 맞대응해 범인이 사살됐다. 두번째 총격 용의자는 현재 수배된 상태다.

주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에 덴마크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헬레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들은 정치적 암살 시도이자 테러 행위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단할 것이다. 덴마크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양성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헬레 토르닝 슈미드 덴마크 총리가 총격 사건을 설명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나도 톰 크루즈" 미래 생활 전시회 인기

metro Russia

SF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던 미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베데엔하 기술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 생활 전시회 '아이디어 2020: 미래 세계로의 여행'을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과학자들이 제안한 이 전시회는 향후 20년 내에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발명품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관람객들은 특히 미래형 인터넷 연결기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인터넷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컴퓨터 사용방법이 현재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다. 스크린 앞에서 손가락으로 인터넷을 체험한 관람객들은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톰 크루즈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 즐거워했다.

관람객 빅토르 이바노비치는 "독일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기발하면서도 우리 생활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은 유익한 전시회"라고 말했다. /정리=이국명기자

밸런타인데이에 숨진 '초콜릿 부자'

페레로 로쉐 오너 별세

세계적인 제과기업 대표의 생애 마지막날은 남달랐다. 이탈리아 최고 부호인 페레로 그룹 대표 미켈레 페레로(89·사진)가 밸런타인 데이에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페레로 그룹 측은 미켈레 페레로 회장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페레로 가문은 헤이즐넛 초코잼 '누텔라'와 고급 초콜릿 '페레로 로쉐'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제과기업이다.

미켈레 페레로 회장의 아버지인 창업주 피에트로 페레로는 2차 대전 시기 군용 식량으로 쓰이던 코코아에 견과류를 섞어 만든 초코잼 누텔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42년 정식 창업했다. 7년 뒤인 1949년 창업주가 별세하자 현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아 밸런타인 데이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 66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페레로 제품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는 명품 이미지로 만들며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페레로 가문을 세계 30번째 부호로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과자 제조사란 별명을 붙였다.

미켈레 페레로 회장은 '일하고 창조하고 기부하라'는 경영철학으로도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산업을 이끈 선구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의 혁신적인 제품과 진요한 사업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회장이 숨졌지만 페레로 그룹의 경영은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1997년 두 아들 피에트로와 지오반니에게 경영 승계를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 피에트로가 2011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오반니(41)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양성희기자

IOC 올림픽 후보지 알마티 실사

2022년 동계 올림픽 후보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스키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IOC는 차기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알마티 실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교황, 신임 추기경 20명 서임식 거행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추기경 20명에 대한 서임식을 거행했다.

14일(현지시간)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신임 추기경 20명의 서임을 위한 미사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참석해 과거, 현재, 미래의 교황이 함께 자리를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기경이 되는 것은 분명히 영예지만 스스로 존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기경이란 호칭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닌 교회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자선을 주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궁극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자선만이 우리를 분노나 도덕적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하는 신임 추기경 서임식은 지난해 우리나라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19명을 새로 임명했던 것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서임식도 첫번째 서임식과 마찬가지로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교황청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가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서임식을 통해 미얀마, 통가, 카보베르데의 경우 처음으로 추기경을 배출했다. /양성희기자

J트러스트 국내 진입 숨고르나

아주캐피탈·아주저축銀 매각 중단 선언

J트러스트가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 인수에 실패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국내업체를 인수, 사업 확장을 시도하던 J트러스트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주산업은 13일 우선협상대상인 J트러스트와 아주캐피탈 및 아주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 매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주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아주캐피탈 지분 74.12% 전량의 매각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일본계 금융사인 J트러스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양측은 최근까지 본계약(SPA)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결국 이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양측은 ▲캐피탈 업계 2위의 시장지위와 오토금융에 특화된 영업력 시스템 등에 대한 가치 평가 ▲유력한 매수 후보자로서의 인수가격 괴리 요구 ▲일본자본 진입에 대한 고객, 당국,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불안 증대 ▲회사 성장전략 등에서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그룹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 상태로 매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고객·직원·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7년 일본에서 설립된 J트러스트는 그간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2011년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시작으로 친애저축은행(구 미래저축은행, 2012년), 하이캐피탈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2014년)을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로부터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의 지분 100%(1510억원)를 인수하고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현재 보유한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만 해도 1조6000억원 대로 SBI, HK에 이어 업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여신업계 2위인 아주캐피탈(6조4000억원)과 아주저축은행(7000억원)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 국내 자산규모 8조원 대의 대형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 인수 실패는 J트러스트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점령에 제동이 걸린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J트러스트가 지속적으로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계 저축은행은 일본에서 1~4%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국내에서 10~20%대의 중금리 이자를 받을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J트러스트를 비롯한 일본계 금융사의 국내 진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이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1957.50	608.07
(+15.87)	(+5.83)

금리	환율
2.05	1093.00
(-0.03)	(-8.50)

외화대출 11억달러 감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현재 국내은행(본점)의 거주자 외화대출 잔액이 240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억6000만 달러(-4.6%)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달러화 대출은 무역결제자금 수요 증가로 13억8000만달러(8%) 늘었다. 이에 반해 엔화 대출은 엔저의 영향으로 26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달러화 대출과 엔화 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2.58%와 2.91%로 0.30%포인트, 0.3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을 취급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외화대출 차주의 환차손은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달러화 대출 차주는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40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반면에 엔화 대출 차주는 엔화 약세로 2000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보다 각각 0.12%포인트와 0.69%포인트 떨어진 0.39%, 1.15%였다.

/김보리기자 min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21-1561

회장·발행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금혁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21일 창간(제하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6)

BC카드, 사랑나눔 박스 전달

BC카드가 지난 12일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쌀과 반찬 등 먹거리를 담은 'TOP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고객들에게 1000원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100 TOP포인트(100원 상당)에 할인 제공하고, 그 판매된 포인트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공익 연계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종흔 BC카드 상무와 신입사원 27명은 서울역쪽방상담소 추천을 통해 선정된 360가구를 방문해 'TOP 사랑 나눔박스'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BC카드 임직원은 "입춘이 지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더욱 춥게 느껴지는 설날을 앞두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위문방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설을 맞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위문방문 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경기도 성남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금융위원회 제공

예견된 서울 전세난,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이 답?

"사업진행 중 인위적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재건축 발 서울 전세난 해결책이 시간이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올 해 서울지역 전세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015년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와 함께 강남·강동, 서초·송파 지역의 재건축으로 2만4000호 이주물량이 집중될 것을 예상한 바 있다. 시는 특정시기에 이주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했으나 계획처럼 될 기지는 않아 보인다.

조합 등 재건축단지 현장 분위기와 전문가들은 이주시기 조정 자체가 처음부터 답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김은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이주 수요 절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주시기만을 분산시키는 것으로는 전세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건축도 사업인데 임의 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지난 9월 '4대 대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전세난 극복 방안으로 강동구에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다.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지만 구별로 여건이 달라 쉽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비용, 사업 장기화 문제 등 사실 이주시기 조정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데 별다른 지원책 없이, 실제적인 인센티브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율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원칙이다. 법적 근거로 수단은 있으나 시장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위적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철기자 kimc0604@

'내우외환'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

작년 적자 이어 노조와 불협화음 …조기통합 제동 등 문제도

외환은행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데다 론스타 배상금 지급 관련 논란과 하나은행 조기통합 제동, 노동조합과의 불협화음 등 안팎으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서도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 이익을 보존할 책임을 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론스타는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 중재판결이 수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외환은행이 400억원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 안에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돼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발생한 외환은행의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벌하고,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실적 하락은 누구탓?

실적 또한 곤두박질쳤다. 외환은행은 지난 4분기 35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 가운데 4분기 적자를 본 곳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정도다.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익 또한 전년대비 17.8% 감소한 3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당기순익이 줄어든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21.2% 증가한 8561억원을 달성했다.

하나금융 측은 "모뉴엘 대손비용 682억원과 외환파생 관련 손실이 전년대비 912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2012년 피인수 이후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노사 줄다리기 팽팽

모회사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와의 마찰 또한 외환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조는 무기한 협상에 들어갔는데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또한 용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조기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조기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합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노조와의 원만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국 하나금융은 지난달 금융위에 제출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도 철회했다.

하나금융 측은 다만 "금융산업은 어느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외환은행의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돌아선 투자심리를 상쇄할 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외환은행 인수 이후 줄곧 1+1=2도 못되는 상황을 연출한 만큼 합병을 서둘러 추진했지만 이번 합병 중지로 시너지 지연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실적 흐름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안상미기자

건설사 설맞이 이벤트 '풍성'

5일간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설이 끝나면 곧장 본격 분양 성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명절 때 친인척들과 둘러앉아 나누는 정보들이 주택 구매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설 이후 전국 45개 단지에서 4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건설사들은 주택 구매에 관심이 높은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설맞이 이벤트가 계획하고 있다.

설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칼을 많은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칼을 갈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차례비용과 명절상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LA1-LA2블록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분양에 앞서 인근 단지 주민들에게 설맞이 '칼갈이 서비스'를 진행한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분양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버려지기 쉬운 홍보전단 나눠주기 같은 일방적인 홍보 보다 고객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하다가 명절에 꼭 필요한 칼갈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청라국제도시 내 최초로 공급되는 테라스하우스로 저층 단지임에도 모든 동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100% 지하주차장 등이 설치된다.

경기도 분당에서 분양 중인 '분당 더테라티지'는 설 연휴기간 계약자에게 차례비용으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또 설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제공한다. 수영장, 가든파티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경기도 광명역세권지구에서 효성이 공급한 '광명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 역시 연휴기간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깝다.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뷰 샘플하우스와 함께 운영되는 분양홍보관에서 전문 역술인을 고용, 예약 방문고객들에게 사주와 타로점을 봐주고 있다. 연초 운세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스킨십 마케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분양 마케팅 활동이 중단될 경우 수요자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만큼 긴 연휴를 활용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선화기자

하나은행 유로머니 선정 '한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 하나은행은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유로머니에 의해 '한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로리 브래머(Rory Brammer) 영국 유명 코미디언 겸 시상식 사회자, 하나은행 김병호 은행장, 헬렌 에이버리(Helen Avery) 유로머니지 US 에디터. /하나은행 제공

전산시스템 성능개선

NH투자증권이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작업으로 일부 서비스가 주말인 15일과 28일 이틀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작업은 합병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지난 15일(일요일)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15시간) 중단됐다. 오는 28일(토요일)에도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4시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중단 업무는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사용, 주식주문 예약서비스, 계좌잔고 조회 등의 서비스다. 다만 ARS를 이용한 사고등록과 시세조회, 투자정보와 금융상품 정보 조회는 할 수 있다.

/김민기자

스마트앱 전자문서서비스 실시

신한은행이 영업점 내 외부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간편하게 금융상품 가입과 신청이 가능한 전자문서서비스(EPS)를 시행한다.

새로 시행하는 전자문서서비스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에스 포스(S Force)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에스 플라자(S Plaza)로 구성된다.

'에스 포스'는 직원들이 거래현황, 각종 거래기업 상담 스케줄 등을 통한 관리해 신속 정확한 상담을 지원하고, 예금신규, 대출신청 등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상품정보와 금융정보를 포함한 영업 상담자료 전체를 전자화해 종이문서 없는 고객영업 환경을 구현했다.

'에스 플라자'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태블릿PC로 접수하고, 대기시간 중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내점 고객의 니즈 분석을 통해 창구 직원이 고객을 맞이했을 때 바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2월 중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이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증권사 '칼바람'…2년간 6000명 감원

대형증권사 인력 감축 - 미래에셋만 늘어

주요 증권사들이 불황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국내 증권맨 수가 3만명대로 떨어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8개 증권사 직원 수가 지난해 3만6561명으로 전년 4만245명보다 3684명 감소했다. 연간 감축 인원도 2013년 2557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증권사 감원 규모는 6241명에 이른다.

특히 자기 자본 규모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감축 인원이 전체의 60.7%인 223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증권사별로는 지난해 합병한 NH투자증권의 감축 인원이 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약 3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삼성증권이 485명이 뒤를 이었다. 대신증권(435명)과 현대증권(307명), 신한금융투자(118명), 하나대투증권(117명) 등의 증권사들도 세 자리대 인력 감축에 나섰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은 주식 거래 감소와 수수료 인하 경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10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인력이 늘어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수는 2013년 1848명에서 지난해 1872명으로 1년 새 24명이 늘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도입해 선제로 대응하고 주식 거래의 명맥이 제한적인 사업인 자산관리와 연금 비즈니스에 주력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인력도 111명 늘었다. 메리츠종금은 지난해 소매 영업 부문 혁신 프로그램 부문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다만 상담수 신규 채용 인력은 고정 지급 비용은 낮고 성과에 따른 성과 보수를 부여하는 연봉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메리츠종금 관계자는 "직원의 임금과 채용 전략을 바꾸자 그동안 고전하던 소매 영업 부문도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트레이드증권(24명)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21명), KB투자증권(19명) 등 증권사의 직원도 두 자리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증권사 지점수도 전년 1477개에서 지난해 1235개로 1년 새 242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가 줄어든 데다 상담수가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증권사의 소매 부문 인력이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

/김문지기자 kim @metroseoul.co.kr

해외인프라사업 공동진출 업무협약 체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한국투자공사(KIC)-공공기관-글로벌인프라펀드 운용사 간의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국토부와 한국투자공사, 공공기관(한국국제공사, LH, 도로공사, K-water, 철도시설공단), 글로벌인프라펀드 운용사(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DB인프라운용)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 인프라 투자 노하우를 국토부, 한국투자공사 및 공공기관 등과 공유해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 진출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시 공동투자자로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구조 및 패키지를 제공해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인프라사업 발굴 ▲각 기관·분야별 전문가 풀 공동 활용을 통한 역량 증대 ▲각 기관별 사업 리스크 셰어를 통한 금융조달 능력 확대 등의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연 8.4% ELS 출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7일까지 코스피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5569회를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중국 자오상증권과 MOU 체결

NH투자증권, 해외상품 개발과 선강퉁·후강퉁 거래 협력

NH투자증권이 중국으로 발을 내디뎠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3일 중국 선전에서 자오상증권(초상증권)과 다각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1월 개시한 후강퉁에 이어 선강퉁(선전-홍콩시장 간 교차거래)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관련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양사는 향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리서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투자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교차 판매하는 업무를 협조키로 했다.

자오상증권은 1991년 설립해 140년의 역사를 지닌 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자오상그룹의 계열사다. 현재 중국내 5대 투자은행으로 성장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등 7개 국가의 온라인 주식 거래를 위해 2009년 온라인 트레이딩시스템을 도입, 작년에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해외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목표로 자오상증권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에서 중국투자 1등 증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채보라기자 purple@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오른쪽에 지난 13일 중국 자오상증권 사장과 만나 양사의 다각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저유가·항공수요 증가 덕 '순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대한항공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수혜와 항공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땅콩회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영향을 받아왔다.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한 달간 대한항공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왔다.

1월 조 유상증자 발표 등 악재까지 겹쳐 좌석이 어려웠다. 그러나 실적 발표를 앞둔 1월 말부터 대한항공 주가는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저유가 수혜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주가는 3개월래 최고가인 4만8300원(2월 6일 종가)을 기록하는 등 N자형 상승을 보였다.

유정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땅콩회항 이슈와 유상증자 발표 등 악재는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실형 선고 직후인 12일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은 일시적 변동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이 같은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호실적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은 저유가로 인한 유류비 감소효과와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8.4% 상승한 1529억원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유가하락 영향 확대, 할증료 인하에 따른 여객수요 증가로 실적 및 주가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홍진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2015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실적을 비탕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채보라기자 purple@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이 개인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대의 토지 일부 /손진영기자

현대차 정의선 팔당호 주변에 대규모 땅

목장 등 용도…5년째 방치 미스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개인기업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인근에 최소 수십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은 축산업, 농작물 생산 등으로 등기돼 있지만 사실상 허름만 갈아둔 채 수년 동안 이렇다 할 사업 하나 진행된 것이 없다. 현대차그룹의 각 계열사와도 연관된 사업이 없는 이종업종이고, 그나마 있는 소규모 매출도 대부분 토지를 계열사에 임대해 발생한 것이다.

15일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본 결과 정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서림개발주식회사가 경기도 퇴촌면 관음리 일대에 30만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 퇴촌면 서림개발 본사를 찾아가보니 한 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광활한 대지와 수목이 야생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현대차그룹산"이라고 지칭했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림개발 위로 뻗은 200만평이 넘는 산이 모두 현대차그룹 소유지다. 이 땅은 서울 인근의 노른자로 향후 개발되면 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소 사육(젖소·육우)을 주업으로 하는 서림개발은 2009년 2월 2일 현대자동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정 부회장이 지분 100%(27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서림개발에는 자회사로 서림환경기술이 있다. 이 회사의 등기부상 목적은 농작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으로 돼있다.

서림개발과 마찬가지로 자체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다. 서림환경기술도 2009년 2월 2일 현대자동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서림개발이 지분 75%(180만주), 산농영농조합법인이 지분 25%(60만주)를 쥐고 있다. 같은 주소를 쓰는 서림개발과 서림환경기술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 관계다.

정 부회장 → 서림개발 → 서림환경기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서림환경기술의 재무지표를 보면 회사가 설립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이 없다. 회사는 있는데 4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20억원, 2013년 기준 자산총계는 120억원이다. 토지 장부가액은 115억원, 공시지가는 125억원이다.

매출 등을 살펴보면 주업은 명목일 뿐 실상은 아무 실적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서림환경기술의 지배회사인 서림개발의 경우 일단은 사업체로서 형태는 갖추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연 2억여원의 매출을 냈다.

하지만 대부분 수익은 현대차 계열사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받은 돈이다. 정작 명목상 주업인 원유매출과 사육소매출은 각각 수천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 해 동안 사육소매출이 66만원에 불과한 적도 있다. 서림개발 역시 축산업은 명목상 목적일 뿐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림개발과 서림환경기술에 대해 "그룹 계열사이긴 하지만 (정 부회장의) 특수 관계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필기자 ramax@metroseoul.co.kr

삼성전자, 'SUHD TV' CF 온에어

색상·디테일까지 보여주는 화질 강조

삼성전자가 한층 더 뛰어난 화질을 앞세운 프리미엄 TV 'SUH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14일 TV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제대로 보면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SUHD TV가 보여주는 화질을 통한 삶의 변화를 영상에 담아냈으며 '요리편'과 '아이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먼저 '음식편'에서는 한 남성이 SUHD TV를 통해 두툼한 스테이크가 다채로운 빛깔로 팬에서 구워지고 있는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눈으로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영상을 지켜본 남자는 이후 사랑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직접 요리해 먹기 위해 와인과 꽃을 준비한다.

'아이편'에는 SUHD TV를 통해 북극곰을 보는 아이가 등장한다. 아이는 각도와 빛에 따라 달라지는 북극곰의 하얀 털을 보다가 "엄마 이거 만져봐도 돼요?"라고 묻고 나서 TV에서 본 북극곰의 털을 스케치북에 한 올 한 올 세심하게 그려낸다.

/삼성전자 제공

/정해련기자 N une@

LG화학, 일본최대 상업용 ESS사업에 배터리공급

LG화학이 일본 최대 상업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사업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LG화학은 일본의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GPD사의 홋카이도 지역 태양광 발전 연계 ESS 구축사업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ESS는 총 31MWh로, 해당 지역의 약 6000가구가 하루 동안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차(볼트기준)로 환산하면 2000대 이상이다.

해당 ESS는 날씨 등 환경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LG화학은 2017년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역 태양광 발전소 4곳에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측은 홋카이도 지역 내는 물론 큐슈와 오키나와 등 일본 내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관련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ESS 등 2차 전지 사업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종주국인 일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규제를 뚫을 수 있었다"며 "북미와 유럽에 이어 일본 시장 공략을 통해 ESS분야에서도 확실한 세계 일등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북해도 ESS 개념도.

/동해연기자

삼성전자 S 아카데미 체험행사에 찾아온 김자인 선수

삼성 IT제품 체험하세요

'S 아카데미' 행사 21~22일 추가 진행

삼성전자의 IT제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삼성전자 S 아카데미' 체험행사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기존 학생 중심에서 모든 연령대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스무살의 아카데미가 모두의 아카데미'로 콘셉트를 바꾼 '삼성전자 S 아카데미' 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전자 S 아카데미'의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인 김자인 선수를 비롯해 주말 쇼핑몰을 찾은 많은 인원이 이색 이벤트에 참여, 삼성전자의 최신 IT제품을 체험했다.

삼성전자는 현장을 방문한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가족·연인·친구에게 전달하는 사연을 담은 '모두의 아카데미 엽서 만들기' 이벤트도 벌였다. 또 950g의 초경량 '노트북 9 2015 Edition'의 무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저울을 활용한 '950g을 맞춰라' 이벤트와 함께 '노트북 9 2015 Edition', '노트북 9 Lite', '올인원PC 7 Curved'의 특장점을 맞추는 빙고게임도 진행했다.

밸런타인데이와 주말을 맞아 코엑스몰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이번 행사는 2월 21~22일 양일간 추가 진행된다.

/한성오기자

가장 빠른 길 안내 받고 고향 가자!

현대엠엔소프트 '맵피 with 다음' 서비스

현대엠엔소프트(www.hyundai-mnsoft.com)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맵피 with 다음'을 통해 '실시간 빠른 경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시간 빠른 경로' 및 '실시간 편한 경로'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사용자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면 된다. 신규 사용자의 경우 안드로이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리고 아이폰은 애플스토어에서 각각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실시간 빠른 경로'는 현대엠엔소프트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엔진 알고리즘 개발과 교통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신기술 서비스이다. 또한 '실시간 편한 경로'는 '실시간 빠른 경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추가로 이용도로의 도로 넓이, 차선 수 등 주행 쾌적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길 안내 서비스이다.

현대엠엔소프트는 '맵피'의 '실시간 빠른 경로'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시에 따라 설 명절을 맞아 '맵피와 함께 고향가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맵피 이벤트는 오는 22일까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9일 동안 진행된다.

/김종훈기자 fun@

<사물인터넷>

IoT 특허출원 1위 LG전자

삼성전자 3위 이름 올려

LG전자가 삼성전자 보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한 국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의 순으로 IoT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사물인터넷(IoT) 특허출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IoT 분야에서 139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웨덴의 에릭슨(206건), 미국의 인텔(198건)과 퀄컴(143건)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사물인터넷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이지만 관련 특허 73건으로 7위에 이름을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삼성전자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IoT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높다. 지난 11월 미국의 유력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가 '2015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순위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IoT 부문 2위로 선정했다.

LG전자 CTO 안승권 사장이 지난달 5일 개방화 전략 전개를 통해 사물인터넷 시장 선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이통사 중에서는 KT가 지난해 75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2건의 특허를 출원해 10위였다.

지난해 IoT 분야 특허 상위 20개 출원인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국이 3곳, 일본이 2곳, 스웨덴 1곳, 프랑스 1곳, 핀란드 1곳 등이었다.

2013~2014년 상위 20개 출원인들이 출원한 특허 중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기업이 전체의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국이 24.9%로 2위, 중국(16.7%), 스웨덴(14.3%), 일본(4.5%) 등의 순이었다.

/유번오기자 yew@metroseoul.co.kr

삼성·LG 기술유출 신경전 '점입가경'

세탁기 파손 혐의 LG 임원 3명 기소 … OLED 수사결과 갈등도 폭발

국내 전자업계의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전과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법정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논란' 공방과 디스플레이 계열사 간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의혹 법적공방도 계속 이어지면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침 검찰 수사 결과가 나란히 공개돼 양사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은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전모 전무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유럽의 가전매장에서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원진이 자사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 전에 LG전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삼성전자 측에는 이를 수용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제안했지만 끝내는 결렬됐다.

LG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윤곤 변호사는 독일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디스플레이 계열사들까지 OLED 기술유출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3일 OLED 기술 유출 의혹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자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15일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을 통해 대형 OLED 기술을 빼내 기소 조치를 받았다"며 "삼성은 기술유출 수사 외의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 익히 알려진 기술로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시 와의 거래 의사를 묻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양성오기자

전국 대학교 총 등록금은 14조 원으로
그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반으로, 학생들의 꿈은 더 크게!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정부의 재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마련한 국가장학금이
젊은 열정들에게
힘을 보탭니다

2015. 2. 26(목) 9시 ~ 3. 11(수)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관련 문의 1599-2000)

신청기준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조건에 따라 70점 이상 80점 미만자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KT 공모전, 신예작가 등용문

KT는 올레마켓웹툰을 이끌어 갈 신예작가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제2회 올레마켓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KT광화문 East사옥에서 최종 6개 작품을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공모작 접수에는 약 600개 이상 작품이 제출됐으며 이는 2013년 제1회 올레마켓웹툰 공모전 접수 규모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내부 심사, 전문가 심사, 독자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발됐다. 특히 전문가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특정 플랫폼 위주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 그룹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전의 최종 수상 작가들은 시상식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작가 이자 공모전 전문가 심사위원이었던 강도하, 김양수, 주호민, 어말년 작가와 축하 만찬-커리어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KT는 올레마켓웹툰은 플랫폼 출범 시점부터 신인 작가 육성을 위해 전문 웹툰 작가그룹과 매칭 등 작품 활동 전반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 작가 6인은 올레마켓웹툰과의 공식 연재 계약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레마켓웹툰은 PC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webtoon.olleh.com'으로 즐길 수 있다. 올레마켓웹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유선준기자

_{<4대>}

삼성 제품 점유율 20% 유지

휴대전화는 떨어져

삼성전자가 지난해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보급형까지 라인업을 확대했지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를 비롯해 갤럭시S5, 갤럭시 알파, A시리즈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집중했지만 애플과 샤오미 등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D램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삼성전자는 전세계 휴대전화 점유율이 지난해 급감한 반면 D램 반도체 점유율은 40%대를 재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주력 제품인 D램은 지난해 점유율이 41.5%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20나노미터급 미세공정을 차별화하고 수직구조 낸드플래시 기술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전 부문에서 TV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고, 디스플레이 패널부문도 점유율 21.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점유율은 재작년 26.8%에 달했지만 지난해 점유율 22.4%로 4.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휴대전화 시장 규모는 18억8000대 수준으로 올해는 이보다 5% 늘어난 약 19억대.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 14억 대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내달 주력 휴대전화 제품인 스마트폰 갤럭시S6와 중저가 제품인 갤럭시A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점유율이 하락했음에도 4대 제품의 점유율이 모두 20%를 넘는 데 성공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4대 제품 점유율 20% 이상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재무제표 내용을 다음 달 13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TV와 휴대전화, D램,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주요 4대 제품으로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ssa@metroseoul.co.kr

2015 한일우호관광교류의 밤
2015 日韓友好観光交流の夕べ

아시아나항공, 한일우호관광교류의밤 행사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개최한 한일우호교류행사가 한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우호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장충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한일우호관광교류의 밤 행사에 한국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및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측은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의원, 구보 시게토 관광청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정필기자

LG전자 '그램 시리즈' 돌풍

'그램 14' 한달만에 국내 판매 1만대 돌파

LG전자가 '초경량 노트북 전쟁'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노트북 시장은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다. 태블릿 PC 처럼 가벼운 노트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면서 삼성과 LG전자가 뛰어난 성능을 갖춘 초경량 노트북을 대거 출시, 치열한 시장 경쟁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월 14일 선보인 '그램 14'가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램 14'는 LG전자가 지금까지 내놓은 노트북 가운데 판매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그램 13'과 비교해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20% 이상 많다.

'그램 14'의 인기 비결은 ▲14형(35.5cm)의 화면에도 980g에 불과한 무게 ▲13.4밀리미터(mm) 두께의 초슬림 디자인 ▲인텔 5세대 CPU가 구현하는 강력한 성능 ▲최대 10.5시간 사용하는 고성능 배터리 등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내달 31일까지 '그램 14'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품 사양에 따라 디자이너 레베카 밍코프가 디자인한 노트북 가방, 전용 고급 파우치, 키보드 스킨, 무선마우스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하태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FD(Function Division)담당 상무는 "초경량 울트라PC의 새 기준으로 자리잡은 '그램 시리즈'로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기자

한국기록원 공식기록 인증서 수여

2015년형 LG신제품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그램 14'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화첨단소재, '설맞이 임직원 봉사활동'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며 '나눔'으로 함께 더 멀리'를 실천했다.

한화첨단소재 이선석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설 명절 음식을 전달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화첨단소재 제공

이선석 대표이사와 임직원 20여명은 지난 12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설맞이 임직원 봉사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태전, 동그랑땡, 고추전, 지지전 등 설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고 포장한 후 미리 준비한 서공국물과 함께 1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 대표는 "임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인 만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며 "늘 함께하겠다는 동행의 의미를 담아 지역 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첨단소재는 세종 및 충북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15곳과 결연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기자

확 달라진 롯데…'신동빈 시대' 연다

올 7조5000억 투자 '사상 최대'…1만 5000명 채용

대외소통 강화하고 현장 직접 챙기며 '광폭 행보'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이 확 달라졌다.

최근 대외소통을 강화하며 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노출 경영을 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올해 투자와 고용 계획도 사상 최대 규모로 밝혔다. 국내외 사업 확대로 '2018 아시아 톱10 글로벌 그룹'이란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분위기다.

15일 롯데그룹은 올해 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조7000억원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2010년 7조원보다도 5000억원 정도 많은 규모다. 올해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250명 늘어난 1만5800명으로 정했다.

다른 그룹들이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아직 투자와 고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유통 옴니채널 구축 투자 집중

사업부문별 투자규모는 유통부문 3조 4000억원을 비롯해 중화학·건설부문 1조 5000억원, 식품부문 1조원, 관광·서비스 부문 1조 1000억원, 기타 5000억원 등이다.

유통부문에서는 아웃렛과 마트 등 신규점 오픈과 함께 롯데가 유통부문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옴니채널 구축에 투자를 집중한다.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소비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쇼핑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서비스로 미미 글로벌 유통업체가 앞다투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롯데는 국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바탕으로 옴니채널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중화학·건설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원료 다변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저가의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탄크래커(에틸렌 제조 원료) 플랜트 건설을 시작한다. 미국 석유화학 기업인 액시올사와 합작으로 추진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2018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 투자비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롯데월드타워&몰 건설 사업은 2016년말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부문에서는 청소년·유아 감소,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식품 산업 저성장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 웰빙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 또 클라우드 맥주의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한다. 현재 가동 중인 충주 제1공장 증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제2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를 활용한 지속성장 기회 포착과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주력한다. 롯데호텔은 2015년 상반기 롯데 시티호텔 울산을 시작으로 10월 롯데 시티호텔 명동, 12월 롯데 라이프스타일호텔 명동을 개관한다. 롯데호텔은 아시아지역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8년까지 국내외에 40개의 호텔체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남아 지역과 일본 시내에도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면서 해외사업 확장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신동빈 시대 걷다

신 회장이 이처럼 대대적 투자에 나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지만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이은 '신동빈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신회장은 최근 대외소통을 강화하며 현장 방문도 늘리는 등 과감한 노출 경영을 하며 은둔의 경영자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매년 2월 초에 단행하던 정기임원 인사를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했으며 특히 대외협력실을 신설하는 등 대외소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 실시된 정기임원 인사에서도 홍보와 대관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이종현 세븐일레븐 이사를 대외협력단에 합류시켰다. 또 최근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운영을 맡는 롯데물산의 홍보역량도 강화해 그룹내서 가장 오래 홍보를 담당해온 롯데제과 홍보실장이던 최경인 이사를 롯데물산 홍보담당 상무로 승진발령했다. 신 회장은 또 최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기자실을 방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997년 그룹 부회장 취임 이후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던 신동빈 회장은 2004년 그룹 정책본부장, 2011년 회장으로 올라선 후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롯데그룹을 재계 5위 서열에 올려 놓았다. 2004년 당시 23조원대이던 그룹 매출은 2013년 83조원을 넘어서며 4배 가까이 커졌다.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그룹 부회장까지 임원직에서 해임되며 '신동빈 시대' 개막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듯 하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롯데그룹 투자·고용현황

TV 밖으로 나온 홈쇼핑

팝업스토어 열고 방문판매…라이브 중계도

홈쇼핑업계가 기존 TV채널을 벗어나 오프라인에 진출하며 판로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불황 속 홈쇼핑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TV·모바일 등 주력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 10일부터 이달까지 현대아울렛 가산점 3층에 홈쇼핑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 타임리스(Timeless)의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홈쇼핑은 설명했다. 홈쇼핑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고 아웃렛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결합했다.

현대홈쇼핑은 타임리스 매장 안에 LCD TV를 설치해 서울패션위크의 화면을 상시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패션쇼에 출품된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는 고급 이미지를 부여 상품의 차별성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타임리스 팝업스토어

CJ오쇼핑은 전국 방문 판매망을 갖춘 교원그룹과 손잡고 방문판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자체 브랜드(PB) 화장품인 르페르를 기존 TV와 온라인 등의 채널에 더해 방문판매를 통해서도 판매한다. 오는 4월부터 구매고객들이 밀집된 서울·강남·분당 지역 고객을 예인 타깃으로 전국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부터 인천 연수구 쇼핑몰 스퀘어원에 '스타일온에어'라는 의류 매장을 열었다. 개점 40일 가량이 지난 현재 스타일온에어는 누적 매출 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1월 기존 홈쇼핑의 스튜디오 방송 포맷을 탈피해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라이브로 중계하는 '찾아가는 홈쇼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생방송 중 LTE 생중계로 현장을 연결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푸드 박람회 등 현장에 홈쇼핑 방송을 중계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직구 열풍 등으로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이 줄고 있다. 각 홈쇼핑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결합하는 판매 방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존 홈쇼핑 방송의 한계로 여겨졌던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홈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농심, 백산수 모델에 방송인 오상진 발탁

농심은 백두산 백산수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방송인 오상진(사진)을 발탁했다.

농심 관계자는 "오상진의 깔끔하고 신뢰가는 이미지가 백두산 청정원시림의 깨끗함을 담은 백산수 특징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백산수 광고는 이달 18일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백산수는 백두산 해발 670m 청정원시림에서 취수한 화산암반수다. 백두산의 자연과 시간이 빚은 천연 광천수라는 점이 소비자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2년만인 지난해 말부터 생수시장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13만 요우커 온다"…유통업계 '함박웃음'

백화점·면세점·마트 중국인 관광객 매출 '껑충'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유통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12월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의 중국인 매출(은련카드 매출 기준)은 전주보다 21%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1%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작년 중국인 매출은 70%나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인 매출 비중도 2013년 10.9%에서 지난해 17.2%로 급등했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스타일난다, 영더플레이스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 매장에 중국인 고객이 30% 이상 늘었다"며 "본격적인 연휴로 접어드는 다음주부터 고객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 수술을 하려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늘고 젊은 나이의 중국인 자유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성형외과가 몰린 압구정동과 가로수길 일대를 찾는 중국인도 크게 늘며 강남 일대 유통가도 특수를 맞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의 지난 6~11일 중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5%나 늘었다. 지난해 춘제 기간(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국인 매출은 전년도보다 165.7% 증가했었다. 올해도 중국인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백화점 측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중국인 고객 매출(시내 면세점 기준)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평균 70만~80만원으로 내국인의 두 배에 달했다. 롯데면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제공

점은 올해 춘제 연휴에는 지난해 춘제보다 중국인 매출이 15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인 대상 경품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키웠다. 서울 신라면세점은 춘제를 일주일 가량 앞둔 지난 6~12일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늘었다.

대형마트도 춘제 특수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는 지난 6~12일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춘제 연휴 전 같은 시점과 비교했을 때 40%나 늘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과자, 여성 위생용품, 레이용품 등이 중국인들의 주요 구매 품목"이라며 "작년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인 매출이 전년보다 51% 늘었는데 올해 춘제에는 중국인 고객이 더 큰 폭으로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에서도 춘제를 앞두고 중국인 예약이 늘고 있다. 명동 인근 세종호텔의 춘제 기간(18~23일) 중국인 예약은 지난해 보다 10% 증가하면서 전체의 25~30%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춘제에는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12만6000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가 중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계에 요우커 들이 매출 부진을 타개할 중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캐주얼하게, 기능성 있게

봄 신사복 밀레니엄·아웃도어 기성세대 맞춰 활동성↑

올 봄에는 불편하고 갑갑하게만 느껴졌던 수트는 잊어도 좋다. 완벽하게 격식을 갖춰 입는 수트를 강요했던 보수적인 회사들까지도 세련된 비즈니스 캐주얼을 권장하는 추세에 맞춰 패션 업계가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신사복을 출시하고 있다.

갤럭시는 정교한 수트 제작 기술력에 기능성 소재와 최신 봉제 기법을 적용한 '시토리얼 테크'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이모션 수트'는 상의뿐 아니라 하의와 안감까지도 탄력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매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로가디스컬렉션도 '스마트 플러스 수트'에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화제가 되었던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를 상의 스마트폰 전용 포켓에 삽입했다. 명함 전송 기능, 시우운 기능, 전화 수신 차단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빨질레리는 남성복의 캐주얼화 경향에 맞게 한 벌로 또는 단품으로 착용할 수 있는 린넨 혼방 수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복원력이 좋은 스트레치 원단이 사용된 엠비오의 네이비 수트도 봄 세련된 수트 패션을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삼성패션연구소의 최영진 연구원은 "최근 비즈니스 캐주얼을 권장하는 근무환경 변화와 더불어 전자 기기와 스포츠를 즐기며 자라온 1982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가 새로운 남성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신사복도 캐주얼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 세대들 역시 기능성을 강조한 아웃도어에 익숙해지면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인 기능성 수트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0215@

매대엔 묶음 상품 전진 배치 요우커 손엔 쇼핑백 줄줄이

[르포] 춘절 앞둔 명동

"환잉광린([illegible]) 어서 오세요)."

중국의 설 춘절(春節)을 닷새 앞둔 지난 13일 오후 명동. 연휴 전인데도 거리는 쇼핑을 하고 있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중국어로 부른 노래까지 들리자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단체로 온 중국 관광객들의 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숍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이 줄지어 들려 있다.

설 명절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있지만 명동 거리의 화장품·의류 매장들도 요우커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1+1', '50% 세일' 등 피켓을 든 직원들은 중국어로 "어서 오세요"를 뜻하는 "환잉광린"이라고 외치며 제품을 담는 바구니를 들면서 매장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은 모델 효과 때문인지 요우커들로 인해 매장을 둘러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아이돌 그룹의 사진은 매장은 물론 핸드크림 등의 제품에 부착돼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었다. 특히 선물을 하기 위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듯 묶음 상품들이 진열된 매대가 입구 앞에 배치돼 있었다. 마스크팩도 20이 장씩 묶어 판매됐다. 묶음 상품은 최근 중국 온라인 몰에서도 대박을 치고 있다. 매장 직원은 "묶어놓은 제품들은 베스트셀러인데다 중국인들이 특히 선물용으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샤 매장에 들어서자 한방 화장품에 대해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는 직원이 눈에 띄었다. 매장 입구 앞쪽 매대엔 중국어로 된 제품 안내와 함께 3~4개 씩 묶음 포장된 비비크림 등이 놓여있었다. 더페이스샵 매장에서도 묶음으로 판매하는 마스크팩에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SPA(제조·유통 일괄 의류) 매장 역시 관광객들이 몰렸다. 에잇세컨즈도 매장 입구에 요우커들 대상으로 한 이벤트 안내문을 세워두었다. 일본인을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손에 제품을 담는 빨간색 가방을 들고 1층 할인 제품을 보거나 2층 신상품을 둘러보고 있었다. 특히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중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브랜드에 사용하는 등 2012년 에잇세컨즈 론칭 당시부터 중국 진출을 겨냥했으며 내년 중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에잇세컨즈 관계자는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명동은 시즌에 상관없이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일찍 마케팅에 돌입했다"며 "패션 상품의 경우 중국인들은 김수현과 같은 한류 배우들이 입었던 옷은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8일부터 24일까지 올해 춘절 연휴기간 중국인 관광객 12만6000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김수정기자 ks.0215@

품격있는 '더 라운지 6-1'

더 리버사이드 호텔, 리모델링으로 특급호텔 정비 완료

더 리버사이드 호텔이 연장 정비와 리모델링을 끝내고 최근 '더 라운지 6-1'을 오픈하면서 특급호텔로써의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 과거 나이트 자리를 모두 없애고 웨딩홀 노벨라 홀과 라운지 바-스테이크 하우스(6-1)-위스키 바(Lost & Found)를 추가했다.

새롭게 선보인 라운지 바는 기존 리운지바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대로 된 키친을 갖춰 특급호텔의 셰프가 제공하는 질 높은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곳에선 뉴욕의 유명한 바 출신으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헤드 바텐더의 손길로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뉴욕 본토의 정통 칵테일을 맛 볼 수 있다. 건축가 지오 앤 파트너스의 김지호 교수가 디자인을 맡아 더욱 화려면서도 도전적인 시도로 재미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라운지와 함께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6-1)는 에이징 스테이크는 물론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와 국내에 흔하지 않은 오일에이징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위스키 바(Lost & Found)는 특별한 칵테일과 제대로 된 특급호텔의 요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기본부터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호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드리는 제대로 된 호텔이다'라는 조상으로 들어가 제대로 된 특급 서비스를 꼼꼼히 준비했다. 더 리버사이드 호텔 관계자는 "특급호텔의 품격, 고객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나 고객님의 가치를 높이는 호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093@metroseoul.co.kr

설 선물세트 최대 반값

강강술래, 연휴 정상영업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설 연휴 정상영업을 하며 선물세트를 권장 판매한다. 명절 외식을 계획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정상 영업을 하며 택배마감으로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일부품목 제외)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7팩/14인분) 3만6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5㎏)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 8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는 10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연휴 동안 외식을 계획하거나 명절 음식에 질린 고객들을 위해 서초와 메이도점은 한우모둠구이 왕양념갈비-한우궁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또 전 매장에서는 4인 이상 방문 시 떡국떡(500g)을 준다(18~20일).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대작 뮤지컬 '로빈훗' 티켓, 삶에 지친 모발에 자신감과 행복을 주는 리시리 샴푸&헤어크림,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 과 나는 세계여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 잘밧의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마음과 감동까지 담았다… 청담동 대표 주얼리 '코이누르'

청담동 감성디자인 예물 대표 매장 코이누르(사진)가 '특별한 날' 기쁨과 감동이 배가되는 주얼리를 콘셉트로 시즌마다 트렌드를 이끄는 감각적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우리집안 보석가게'라는 따스하고 동화적인 디자인 모토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고객 개개인의 이야기를 더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실현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예인들이 즐겨찾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감성적이고 특별한 이 가게는 웨딩이들밥지부터 지계 디자인과 핸드메이드 세공으로 공방까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코이누르는 예물, 프로포즈 다이아몬드 리뉴로 나뉘며 매장 내 아트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송진희 코이누르 대표는 "내가 만들고 낀 반지를 딸에게 물려주고 또 그 딸이 손녀에게 물려주는 3대에 걸친 가치 있는 커플링과 주얼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는 커플들의 커플링을 넘어 친정엄마와 딸이, 잘 베이지 가 의미가 담긴 커플링을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예물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상하이·뉴욕·파리 등에 해외지점 론칭을 준비하는 코이누르는 제품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새끼손가락을 건다는 명심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동국제약, '소망의 집' 겨울나기 후원

쌀-난방유 등 생필품 전달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인사동 사랑봉사단'이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소망의 집'을 방문해 쌀과 난방유 등 겨울철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1990년 설립된 소망의 집은 중증 장애인들을 보호·치료하는 시설로 동국제약은 지난 16년간 물품 전달은 물론 빨래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인사동 사랑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이 있다. 올해도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대한지주과학회, 박결림어린이재단 등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재웅기자

슈피겐, 오늘부터 창립 6주년 이벤트

모바일 패션 전문 기업 슈피겐코리아는 창립 6주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푸짐한 혜택과 선물을 증정하는 '슈피겐, 생일 축하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6년간 슈피겐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슈피겐 공식스토어 및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 공식스토어 회원 모두에게 전 상품 6% 할인권을 일괄 지급하며 페이스북 팬이 된 후 댓글을 남길 시 선정을 통해 공식스토어에서 사용 가능한 6만원의 적립금, 보조배터리, 슬더백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새로운 고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회원에게는 16%의 할인쿠폰이 주어지며, 공식 페이스북 내 숨겨진 비밀코드를 찾아 회원가입 시 입력하면 2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수미기자

송진수작가 특별전으로 초대합니다

쉐라톤 인천 호텔 로비에 유명 예술작품 전시

쉐라톤 인천 호텔은 13일부터 3월 말까지 드로잉 조각작품으로 유명한 송진수 작가를 초대해 '드로잉 홈뜨리다'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연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 금속소재 철로 선과 선을 용접해 종이에 드로잉 하듯 표현한 입체 조각작품을 선보인다. 송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배치해 색다른 공간과 신기한 느낌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 작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이자 티쏘(TISSOT)와 갤러리아 콜라보레이션으로 작품을 전시해 많은 이목을 끌었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지난해부터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나마 여유를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 갤러리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아트 갤러리에는 한국전업미술가협회의 이선화 작가의 작품이 전시중이다. 이선화 작가는 빛·어둠 덩어리·선 등 동양적인 요소들을 화면에 풀어 또 다른 공간과 선이 주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변화의 충돌을 표현해 주목받고 있다.

/손보라기자

트레일스터

튀는 디자인 힘찬 주행감

오프로드형 트레일스터

기아차 시카고 오토쇼서 첫 공개 · 현대차, 싼타크루즈·벨로스터 랠리카 등 27대의 차량 전시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열린 '2015 시카고 오토쇼(2015 Chicago Auto Show)'에서 콘셉트카 '트레일스터(Trail'ster)'를 세계최초로 공개했다.

트레일스터(Trail'ster)는 기아 미국 디자인센터에서 제작한 콘셉트카로 쏘울의 오프로드형 모델로 개발됐다. 아웃도어 활동과 어울리는 진자연적인 디자인으로 눈길과 산길 등 험로도 주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아차가 세번째로 제작한 쏘울 기반 콘셉트카로 다양한 컨셉트로 진화할 수 있는 쏘울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트레일스터(Trail'ster)는 쏘울의 개성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눈밭과 대지의 토양에서 영감을 얻어 간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차량 주위를 둘러싼 스키드플레이트는 알루미늄 재질로 마감 처리하는 등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모습을 갖췄다.

또한 ▲4개의 아이스큐브 타입 디자인이 적용된 헤드램프 ▲야외활동에 적합하도록 위치와 모양, 크기 등이 조정된 포그램프와 사이드미러램프 등을 적용해 야간에도 부담 없이 주행을 즐길 수 있는 탁월한 가시성을 확보했다.

트레일스터(Trail'ster)는 천장을 뒤로 말아 완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캔버스 루프를 적용해 ▲탑승자가 차 안에서도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차체의 무게를 줄여 연료 효율을 향상시켰고 ▲무게중심을 낮춰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트레일스터(Trail'ster)는 오프로드 환경에 최적화된 외관뿐만 아니라 1.6 터보 감마 GDi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220마력(hp), 최대토크 285ft-lbs(약 39.4kg·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노면상태와 주행조건에 따라 최적의 주행성능을 제공하는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e-AWD)을 적용해 기계식 4륜구동 시스템과 비교해 보다 경제적으로 눈길 및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트레일스터(Trail'ster)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2.0 가솔린 쏘울 모델과 비교해 도심주행 25~30%, 고속주행 5~10%의 연비 개선 효과를 거두며 강력한 동력성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갖췄다.

기아 미국 디자인센터 수석 디자이너 톰 커언스는 "트레일스터는 기아 쏘울이 진화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트레일스터는 도심을 떠나 야성으로 탈출하고 싶은 도시인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22일까지 열리는 '2015 시카고 오토쇼' 기간 동안 1876㎡ (약 567평)의 전시공간에 ▲K9(현지명 K900), 올 뉴 카니발(현지명 세도나) ▲뉴 뉴 쏘렌토 ▲K5 하이브리드 500h(현지명 옵티마 하이브리드) ▲튜닝카 박람회인 'SEMA쇼'에서 호평을 받았던 K9 고성능 튜닝 모델 등 총 28대의 차량을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주)도 1769㎡(약 535평)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픽업트럭 스타일의 콘셉트카 싼타크루즈(HCD-15)를 비롯해 ▲i20 WRC카 ▲벨로스터 랠리카 ▲쏘나타 하이브리드 ▲쏘나타 PHEV 등 총 27대를 전시한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9단 변속기 탑재 '올 뉴 크라이슬러 200' 출시

FCA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중형 세단 '올 뉴 크라이슬러 200'이 국내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올 뉴 크라이슬러 200은 크라이슬러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로 그릴과 헤드램프를 통합해 감성적인 동시에 만첨함을 연상시키는 전면과 후면의 부드러운 바디라인을 구현했다. FCA코리아는 15일 600시간이 넘는 윈드터널 테스트를 통해 차체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HI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안개등, LED 테일램프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동급 최초로 최첨단 전자식 로터리 이-시프트(E-Shift)를 적용, 센터 콘솔 디자인에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췄다.

올-뉴 200은 알파 로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CUS-와이드(CUS Wide) 모듈러 플랫폼이 적용됐다. 또 동급 최초로 올-뉴 200에 적용된 9단 자동변속기는 기어비가 촘촘하게 구성돼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한다.

신형 2.4-리터 멀티에어 2 타이거샤크(liter MultiAir 2 Tigershark) 1.4엔진은 이전 엔진에 비해 출력은 6%, 토크는 1%나 크게 향상돼 최고출력 187마력, 최대토크 24.2kg·m의 파워를 제공한다. 올-뉴 200 리미티드 모델의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9km/L(고속도로 기준 15.1km/l)다.

국내 판매가는 올-뉴 200 리미티드모델의 경우 3180만원, 올-뉴 200 C 모델은 3780만원이다. /김종훈기자

설, 고속도로 무상점검 주요 지점은?

자동차업계는 안전한 귀성길 조성을 위해 설 연휴기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15일 현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5개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설 연휴 자동차 특별무상점검 서비스와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안전 운전을 돕는다.

이 기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면 엔진·브레이크·타이어 점검, 냉각수·각종 오일류 보충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하행 휴게소에서는 17~18일, 상행 휴게소에서는 19~20일에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코너가 운영된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경부선 주 풍령(하행, 상행), 중부선 음성(하행, 상행), 중부내륙선 충주(하행, 상행), 영동선 여주(하행 4일간 운영), 남해선 함안(하행, 상행), 중앙선 치악(하행, 상행), 천안논산선 정안(하행, 상행), 대전통영선 덕유산(하행, 상행), 서해안선 서산(하행, 상행) 등 17개 지역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경부선 기흥(하행 4일간 운영), 죽암(하행, 상행), 칠곡(하행, 상행), 호남선 백양사(하행, 상행), 중앙선 치악(하행 4일간 운영), 서해안선 흑성(하행, 상행), 군산(하행, 상행)에서 서비스를 펼친다.

한국GM은 경부선 죽암(하행, 상행), 영동선 평창(하행, 상행), 남해선 섬진강(하행 4일간 운영), 중앙선 치악(하행, 상행)에서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르노삼성차는 경부선 천안삼거리(하행, 상행), 영동선 문막(하행, 상행), 남해선 함안(하행, 상행), 서해안선 대천(하행, 상행)에 서비스코너를 마련했다.

쌍용차는 경부선 망향(하행), 천안삼거리(상행), 호남선 정읍(하행, 상행), 영동선 여주(하행, 상행), 남해선 진영(하행, 상행), 서해안선 화성(하행, 상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운행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감동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허당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만!"

조선명탐정2로 돌아온 김명민

4년만의 속편, 이산가족 상봉한 기분
1편 다시 보며 캐릭터 연속성 살렸죠
명절에 볼 수 있는 장수 시리즈 되길

'허당끼' 가득한 김명민(42)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의사, 그리고 드라마 제작자까지 김명민은 여러 작품들 속에서 늘 완벽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영화 '조선명탐정' 시리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명민의 기존 이미지를 비트는 반전의 캐릭터가 이 시리즈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은 지난 2011년 개봉해 전국 478만 관객을 모았던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의 속편이다. 김명민은 전작에 이어 명탐정 김민 역을 맡아 김석윤 감독, 배우 오달수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다.

1편 개봉 당시 흘러나온 속편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다시 뭉친 스태프들과의 호흡은 기나긴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편의 부담이요? 그런 것 없이 촬영했어요. 4년 전 함께 했던 스태프들을 다시 만나 작업하는 것이라 마치 이산가족 상봉한 느낌이었죠."

'조선명탐정2'에서 김명민이 신경 쓴 것은 전편에 이은 캐릭터의 연속성이었다. 촬영을 앞두고 1편을 다시 보며 "좋았던 부분은 더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채우고 심한 부분은 빼려고" 했다. 전편처럼 능청스럽고 코믹하지만 유독 여자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연희가 연기한 묘령의 여인 히사코를 만날 때마다 '허당끼'를 더욱 드러내는 김명민의 모습은 '조선명탐정2'의 신선한 재미다.

"여색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게 좀 심해졌죠? 캐릭터를 강화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녀석, 기억하고 있었구나'라고 말하는 장면은 연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잘 해야 본전이거든요. 연희와의 호흡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더 잘 산 것 같아요."

김명민은 "우리끼리는 벌써부터 '조선명탐정' 3편과 4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속편에 대한 욕심을 넌지시 드러냈다. 나아가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명절마다 찾아오는 가족영화 시리즈로 장수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제가 어릴 때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나 '007'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드라마 '맥가이버' 같은 것들을 봤어요. 다 할리우드 작품이었죠. 이런 시리즈처럼 '조선명탐정'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보면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시리즈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가 명절에 성룡 영화를 본 것처럼 이 아이들은 명절에 김명민 영화를 보는 거죠(웃음)."

그래서 김명민은 허당스러운 캐릭터를 '조선명탐정' 시리즈를 통해서만 보여줄 생각이다.

"주변에서 '조선명탐정' 시리즈 같은 코믹한 역할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묻는데요, 이런 캐릭터는 '조선명탐정'만의 캐릭터로 간직하고 싶어요.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캐릭터가 소모된다면 시리즈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김명민은 올해 드라마보다 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연가시'의 박정우 감독이 연출하는 신작 '판도라'에 출연한다.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 역"으로 김남길, 문정희 등과 호흡을 맞춘다. 그는 "'판도라' 말고도 몇 작품 검토 중"이라며 "확정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배우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서 또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배우 생활을 하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지선미) 디자인/최송이

star bag

기내 만취난동 물의 사과

가수 **바비킴**이 기내 만취 난동 사건을 사과했다. 바비킴은 지난 13일 오후 6시35분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다. 바비킴은 지난달 7일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씨제스엔터에 새 둥지

배우 **이청아**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이청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많은 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청아는 올 여름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기·신인배우 발굴 병행

배우 **이범수**가 드라마 제작사 드림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범수는 드림이엔엠의 신규사업 파트인 매니지먼트 사업부문 총괄 책임자 업무도 병행한다. 이범수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진정성 있는 연기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우들의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암 이겨내고 제2의 도약 '시동'

브로브그룹 LPG 출신 **한영**이 마루기획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마루계약은 "갑상선 암을 이겨내고 신곡 '와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한영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장민·김찬우 "色다른 병태"

뮤지컬 '오디션' 더블캐스팅

그룹 2AM 이창민, 뮤지컬배우 김찬호가 전혀 다른 밴드그룹 보컬로 변신했다.

이들은 뮤지컬 '오디션'에서 병태 역으로 더블 캐스팅됐다. 병태는 밴드 복스팝의 엇에진 보컬이다.

14일 열린 프레스콜에서 이창민은 "김찬호표 병태보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더 거칠다"며 "돌쇠같이 우직하고 무뚝뚝한 느낌이 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찬호는 "나는 귀여운 병태"라며 "코를 찡긋하는 표정이 매력이나 나긋나긋하지만 어수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디션'은 음악을 향한 열정만으로 뭉친 록밴드 복스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2007년 초연 후 성공한 액터 뮤지션 뮤지컬(배우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컬)이란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까지 1700회 공연을 했다.

새롭게 재구성된 2015년판 '오디션'은 내달 15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공연된다. /유순호기자 jeonhs@

원작만화의 성공적 영화화

film review

청춘·히어로·호러 뒤섞인 매혹적 장르물

■기생수 파트1

이와아키 히토시의 만화 '기생수'는 기이하고 잔혹했다.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인간에 기생하며 인간을 잡아먹는 괴생명체의 이야기는 끔찍하면서도 자꾸만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세계관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런 '기생수'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기대보다 걱정을 갖게 했다. '20세기 소년' '드래곤볼'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영화가 실패한 사례는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만화가 담고 있는 잔혹함의 수위도 영화로 그대로 표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 '기생수 파트1'의 강렬한 오프닝은 그런 걱정과 의문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이 정도면 만화 원작 영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을 만하다.

영화는 원작의 이야기를 최대한 그대로 따라간다. 평범했던 고등학생 신이치(소메타니 쇼타)가 기생생물에게 오른손을 빼앗긴 뒤 오른쪽이(아베 사다오)와 함께 기묘한 동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다.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는 잔혹한 연쇄살인사건, 그리고 신이치의 학교에 나타난 의문스러운 교사 타미야 료코(후카츠 에리)의 등장 속에서 신이치와 오른쪽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생생물의 정체와 그 이면에 감춰진 음모를 찾아 나선다.

'기생수 파트1'은 만화를 그대로 영화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원작에 대한 '약축과 생략'이 눈에 띈다. 영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작의 스토리를 간결하게 풀어내면서 동시에 원작의 주제와 장점을 그대로 가져간다. 잔혹함의 수위도 그대로 가져가 원작의 팬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원작을 보지 않은 관객에게도 '기생수 파트1'은 청춘영화와 히어로물, 그리고 호러영화가 한데 뒤섞인 매혹적인 장르영화로 다가갈 것이다. 만화 원작 영화화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궁금해진다. 청소년 관람불가. 2월 26일 개봉.

'수지모자'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사진)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 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폭력수위 높은 '킹스맨' 흥행 반란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가 박스오피스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킹스맨'은 지난 11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4일 토요일 하루 동안에는 23만7221명의 관객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50만5823명이다.

'킹스맨'은 '킥애스: 영웅의 탄생'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등을 연출한 매튜 본 감독의 신작이다. 구제불능의 낙오자로 여겨졌던 청년 에그시가 전설적인 베테랑 요원 해리 하트를 만나 비밀 첩보요원 킹스맨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다소 잔혹한 액션 수위로 흥행이 불투명했지만 설 연휴 이전 상당수의 관객을 모으며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4년 만에 설 극장가 접수에 나선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은 예상대로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4일 하루 동안 32만2043명을 모았으며 누적 관객수는 69만1614명이다.

'조선명탐정2'와의 흥행 대결이 예상됐던 '쎄시봉'은 기대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봉 9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객 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기자

고원희·리아 'SNL 코리아' 첫 등장 시선

tvN 'SNL 코리아 시즌6'에 새로운 크루로 합류한 배우 고원희(사진 왼쪽)와 방송인 리아(오른쪽)가 첫 방송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다.

15일 방송된 'SNL 코리아'에서 고원희는 정연주와 함께 '여배우들' 코너에 출연해 묘한 자존심 싸움을 펼쳤다.

고원희는 뛰어난 미모로 코믹한 연기를 펼쳐 시청자 이목을 사로잡았다. 아시아나 항공 모델로 활동 중인 사실도 알려져 관심이 뜨겁다.

방송인 리아는 이날 'SNL 코리아'에서 '글로벌 위켄드 와이' 코너로 첫 출연했다.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한 영어 솜씨를 뽐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병호기자

전혜빈 '사내연애'로 스크린 컴백

솔직 담백 매력 뽐내 … 3월 중 크랭크인

배우 전혜빈(사진)이 영화 '사내연애'(가제)에 캐스팅됐다.

지난 13일 소속사 나무액터스 측은 "전혜빈이 영화 '사내연애'에 여주인공 우연이 역으로 출연한다"며 "솔직 담백한 매력을 뽐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혜빈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기활동을 이어왔다. 드라마 '조선총잡이'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종영한 KBS2 월화극 '힐러'(마지막회)에서는 드라마의 결말을 매듭짓는 중요한 핵심 인물로 등장해 존재감을 뽐냈다.

소속사 측은 "다년간 쌓아 잘 다듬어진 안정된 연기력과 뛰어난 캐릭터 표현력을 가진 전혜빈을 향한 영화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며 "'사내연애'를 통해 보여질 전혜빈의 스크린 속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한편 '사내연애'는 오는 3월 중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JTN MEDIA와 함께합니다

당신만이
사랑입니다

BRAVO MY LIFE

MUSIC DRAMA

당신만이

대학로 예술마당 4관 | OPEN RUN

평일 8시 | 토요일 3시·6시30분 | 일요일·공휴일 3시

3월조기예매 할인 2월16일~2월22일까지 예매자에 한해서

평일 40% 24,000원 / 주말 30% 28,000원

| 제작 | 도모 컴퍼니 | 주관 | 도모 컴퍼니 JTN MEDIA

| 티켓 | 인터파크 1544-1555 | 단체관람 및 공연 문의 | 070-8245-2602

지동원, 골은 언제쯤

3경기 연속 풀타임 '헛심'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사진)이 4경기 연속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지동원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베르더브레멘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끝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해 12월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뒤 3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이다.

지동원은 전반 31분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수문장에게 가로막혔다. 후반 26분 때린 헤딩슛은 골대를 벗어나며 기대하던 골은 넣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베르더브레멘에 2-3으로 졌다.

팀 동료 홍정호는 출전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호펜하임 수비수 김진수는 슈투트가르트전에 선발로 나서 역시 끝까지 경기장을 누볐다. 김진수는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다.

호펜하임은 후반 48분에 터진 세바스티안 루디의 결승골에 힘입어 슈투트가르트에 2-1로 이겼다. /김성현기자 mykim@

피겨 희망' 김해진 환상 연기 "성장통 끝났다" '한국 피겨 희망' 김해진(18)이 15일 오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피겨 프리스케이팅에서 환상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해진은 ISU 공인 시즌 최고점인 55.89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국내 종합선수권대회에서의 부진을 말끔하게 털어냈다. 경기 후 그는 "한 키가 165㎝로, 소치올림픽 이후 무려 4㎝ 넘게 자랐다"며 "갑자기 키가 커 몸의 무게중심이 바뀌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행히 성장통이 끝나가는 단계라 앞으로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힘찬 각오를 밝혔다. /김민준기자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의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1라운드 경기.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AP뉴시스

분데스리가 개인 두번째 해트트릭…獨 언론 양팀내 최고 평점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 소속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썼다.

손흥민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1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2분과 후반 17분, 후반 22분에 연달아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하노버96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에 걸친 골 침묵을 화끈하게 깨뜨리며 시즌 막판 대활약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이날 리그 6·7·8호 골이자 시즌 12·13·14호 득점을 잇달아 넣었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이다. 이전 그의 한 시즌 최다 골은 2012-2013시즌, 2013-2014시즌에 세운 12골이었다.

또 2013년 11월 10일 함부르크전 이후 처음이자 분데스리가 데뷔 이후 두 번째 해트트릭을 작성하는 기쁨도 누렸다.

이날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전반까지 0-3으로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전 들어 손흥민이 10분 사이에 3골을 몰아치며 홈 관중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대역전극을 꿈꾸던 레버쿠젠은 후반 37분 에미르 스파히치가 퇴장당해 수적 열세 속에 경기를 펼쳤다. 손흥민은 후반 47분 프리킥 키커로 나서 4번째 골을 넣을 기회를 잡았으나 슛은 골대 위를 훌쩍 벗어나고 말았다.

오히려 후반 48분 상대팀 케빈 더 브라위너가 4번째 골을 뽑아낸 볼프스부르크가 5-4로 승점 3을 챙겼다.

경기 후 독일 일간지 빌트는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점인 1점을 줬다. 빌트는 1~6점으로 선수들에게 평점을 매기는데 평점이 낮을수록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뜻이다.

상대팀에서 무려 4골을 터뜨린 바스 도스트 역시 최고 평점인 1을 받았다. 레버쿠젠에서는 수문장 베른트 레노와 후반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한 에미르 스파히치, 침묵을 지킨 골잡이 슈테판 키슬링 등 8명이 대거 낮은 평점인 5를 받았다.

손흥민은 "팀이 패해 매우 아쉽다"며 "전반 열세를 후반에 잘 따라잡았고 경기 내용도 좋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골을 내주고 패한다면 고통만 남을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장병호기자 solarmin@metroseoul.co.kr

손흥민 '차범근 19골 신기록' 가시권

0.5 경기당 평균 한골씩…시즌 15경기 남아

손흥민이 볼프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분데스리가 데뷔 이후 자신의 한 시즌 역대 최다골(14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손흥민은 이날 해트트릭으로 이번 시즌 12·13·14호골(DFB 포칼 1골, UEFA 챔피언스리그 5골 포함)을 잇달아 작성했다. 정규리그만 따지면 6·7·8호골이다.

이제 관심은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한국 축구를 알렸던 차범근(62) 전 수원 삼성 감독의 대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쏠리게 됐다.

차 전 감독은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정규리그에서 17골, 포칼에서 2골을 넣으며 한국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19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손흥민이 5골만 넣으면 차 전 감독과 타이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앞으로 손흥민은 정규리그 13경기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2경기) 등 1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28경기에 나서 14골을 작성했다. 경기당 0.5골을 넣은 셈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골 고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신혼기자

전북 현대 미드필더 이호 영입

"공수 뛰어나 전술 운영 큰 힘"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형제기 인' 울산 현대 소속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이호(31·사진)를 영입했다.

이호는 2003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해 K리그 통산 247경기에 나와 9골 13도움을 기록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이후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러시아), 알 아인(아랍에미리트), 오미야 아르디자(일본)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키 182㎝와 몸무게 75㎏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이호는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 뛰어난 수비력이 장점인 선수로 공격 전환 패스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최강희 전북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공수 조율 능력이 뛰어난 이호의 영입으로 전술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호는 "명문구단 전북에 와서 행복하다"며 "전북에서도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신혼기자

끝나지 않는 생리통, 혹시 자궁선근증?

많은 여성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자궁선근증 등의 증상을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 증상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질환으로 20~50% 정도의 환자는 자궁근종과 함께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궁선근증의 가장 큰 특징은 생리량의 증가와 생리통이 장기간 이어지는 증상이다. 생리기간 전후 7~10일 가량 아랫배 통증이 지속되며 한 달 정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육층으로 파고들어간 자궁 내막 조직이 자라면서 혈액이 모이기 때문이다. 즉 병변이 두꺼워지고 자궁과 주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생리기간을 포함해 통증과 함께 생리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명절이면 늘 찾아오는 명절증후군으로 착각해 질환을 방치하는 여성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판단,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문제는 자궁선근증이 자궁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 자궁근종처럼 양성 종양만 잘라내고 자궁을 보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통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최근에는 고령 산모의 증가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늘면서 자궁적출술 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선근증에 집중해 병변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자연 분만이 가능하다.

김태희 청담산부인과의원 원장은 "많은 여성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자궁선근증이나 자궁근종 등의 증상을 단순한 명절증후군으로 생각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허리와 아랫배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생리량이 증가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명절증후군 '그놈'이 오고 있다

질환 발전 주의해야 · "통증 심해지면 병원 가야"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최소 5일의 연휴다. 또 모처럼 고향을 찾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뜬 이들이 많다. 하지만 명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절증후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명절로 인해 유발되는 폭넓은 증상을 일컫는 말이다. 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하나의 공통된 배경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대부분의 증상은 명절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일부는 특정한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증후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역시 주부다. 명절에 하는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자주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는 손목과 무릎이다. 집안일과 음식을 만들고 치우며 손목과 무릎에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손목이 아플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20~30분 가량 온찜질을 하는 것도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근육과 관절의 퇴행 현상이 심해지는 40~50대 중·장년층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선과 생활패턴을 살펴야 한다. 게다가 명절 때마다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누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명절 후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형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명절 후 관절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없던 증상이 생겼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yu@@metroseoul.co.kr

녹내장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김안과병원 24일 건강강좌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이 오는 24일 병원 명곡홀에서 '소리 없는 시력의 도둑, 녹내장'을 주제로 '해피 eye 는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녹내장센터 센터장이기도 한 김황기교수가 질환 정보와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며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김 교수는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녹내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인 실명을 가져오는 3대 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은 여러 원인으로 시신경이 죽으며 시야의 소실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특히 대부분의 녹내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병이 진행돼도 중심시력은 유지돼 질환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즐거운 귀성길, 무릎은 고생길

운전 등 장시간 앉아 있으면 악영향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즐겁지만 명절 때마다 꽉 막히는 도로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특히 운전 등으로 자동차 좌석에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무릎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무릎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리를 자주 움직여야 한다. 차가 정지할 때마다 무릎을 움직이거나 1~2시간에 한 번 정도 차 밖으로 나와 다리를 펴서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또 무릎에 가는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하다. 엉덩이를 좌석에 밀착해야 하며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면 높은 굽으로 뒷꿈치가 안정적인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없어 발목과 무릎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운전 시 발이 편안한 단화로 갈아 신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명절기간에 나타난 무릎 통증은 심하지 않다면 휴식과 찜질로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다. 다만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절염의 위험성이 높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승엽 장튼튼병원 은평점 원장은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에 발생하는 무릎 통증은 무릎을 많이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다사용 증후군에 해당된다. 연골이 약하거나 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며 시간이 나는대로 스트레칭을 하는 등 무릎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인사

■국가보훈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 기획조정관 안병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강순근 ▲제조업감시과장 남동일 ▲정책홍보담당관 안병규 ▲국방대교육 파견 이유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 과장 직위 승진 ▲카르텔조사과장 김의제 ▲기업거래과장 박기흥 ▲대전사무소장 곽한경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장수진 <과장직위 승진> ▲ 농촌정책국 경역인력과장 서준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변상문 ▲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장 이동훈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기도현 <과장급 전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연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이상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임종길

■보건복지부

◇ 국장급 ▲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 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 ▲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최성락 ◇ 과장급 ▲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 김혜선 ▲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영기 ▲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근무 김수영 ▲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준호 ▲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임숙영 ▲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임도교 ▲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정희 ▲ 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복지교육본부장) 파견 근무 정호영

■조달청

◇ 부이사관 승진 ▲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성민 ◇ 서기관 승진 ▲ 김사업담당관실 박준용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재구 ▲ 전자조달국 정보기획과 이진규 ▲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조주형 ▲ 시설사업국 시설사업기획과 조인선 ▲ 시설사업국 여신사업관리과 김관수

■중소기업청

▲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서기관 김정일 ▲ 재정운영국 벤처투자과장 기술서기관 박용순 ▲ 중소기업청장 서기관 박종찬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획상임이사 김잘권 ▲ 대전지역본부장 강희권 ▲ 법무지원실장 이정희

■광주시

◇ 4급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훈 ▲ 환경정책국장 윤남권 ▲ 의회사무국장 이수유 ◇ 5급 ▲ 기획예산관 황수진 ▲ 회계과장 정철교 ▲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 위생과장 직무대리 유국전 ▲ 대중교통과장 직무대리 이동원 ▲ 전수도과장 직무대리 김선호 ▲ 물류관장 직무대리 황인선

부고

▲ 김영근 씨 별세, 김사용(한국철도시설공단 인재개발처 교수)·사인선(건 동덕여대 교수) 씨 부친상 = 15일 오전 8시40분, 대전선모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42)220-5971

▲ 오정인씨 별세, 홍갑의(티얼리모남 권진장)씨 장변, 황종호(한국수출입은행 대리) 장모씨 오전상 = 15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62)220-3392

<3·1절>

기업인 가석방 심사 제외

'땅콩회항' 사건 등 재벌가에 부정적 여론 감안한 듯

최태원(54) SK그룹 회장 형제 등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또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울러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는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재벌가 인사들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은 빠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여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제기됐던 기업인 가석방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34) 전 검사도 포함됐다. 다만 법무부가 전씨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전씨가 가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마지막 겨울을 더욱 즐겁게~ 15일 경기도 광주시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를 찾은 막바지 겨울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연합뉴스

성묘하러 왔어요! 설연휴를 코앞에 둔 주말인 15일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한 가족이 성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한의사 싸움은 정부 탓

기자 수첩
황채응
<사회부 기자>

의사와 한의사들의 싸움이 전율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이 둘은 현재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번갈아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들의 대표 집단은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민 여론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서로의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며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싸움은 정부가 불렀다. 이번 싸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한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정부에 건의한 과제를 정부가 직접 골라 최종 대상을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건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고 한다. 또 이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들여와 돈을 벌면 채무자가 이뤄져 다시 시설과 인력에 투자가 이뤄진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한 몰상식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일 뿐이다.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를 최우선시한다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경제논리를 먼저 생각한 셈이다.

이미 갈등은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이 계속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갈등과 혼란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폭넓은 의사소통과 보건의료계라는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댓글 판사' 사표 수리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대법 "법관직 유지가 재판 공정성 손상" 해명

인터넷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전날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게 돼 본인이 왜 댓글을 작성했는지 등에 관한 소명조차 들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 부장판사의 신속한 사직처리가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징계 처분 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돼 사직 후 변호사 개업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이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논란을 되도록 빨리 진화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사건을 조직 전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부장판사의 댓글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가 사법부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서 댓글 작성 사실의 유출 경위를 수사 의뢰하는 경우나 댓글에서 언급된 이들이 그들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고소하는 경우다. A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신의 제왕' 이라 비난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다수 작성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노동법 위반하면 즉시 처벌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시정 기회를 먼저 주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한다는 지적과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고용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검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정을 완료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현정기자